

<코로나 시대와 장애인 체육>

안녕하세요? 전 파라아이스하키 주장 한민수입니다. 2021 평창장애포럼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장애인 인권과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코로나는 장애인 스포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의 연기를 포함해서 각종 국제대회는 취소나 연기되었고 여전히 예선전이 열리지 못한 종목들이 남아있습니다. 학생체전이나 동계체전 같이 매년 열려오던 전국규모 대회가 처음으로 취소되었고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원에 입촌하지 못하거나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각종 시설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 관련된 국가사업이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장애인 편의지원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과 문제점>

장애인 스포츠는 이러한 사회 위기 속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장애인들을 더 활동적으로 만들고 사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제약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장점들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율은 비장애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애초에 여러 이유에서 활동성이 적거나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실내외 장소가 적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운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책적 소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은 운동하지 않았을 때 건강 문제에 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비 등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상황의 유지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대회개최 및 체육시설의 운영 불가로 비대면 스포츠 활동 상황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역 중심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18 평창 패럴림픽 동메달 리스트로서 패럴림픽만 바라보고 훈련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대회 취소나 불확실성의 지속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장애인 실업팀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훈련일수 부족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나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일자리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훈련하지 못하는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와 해결책>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미래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영상 콘텐츠(홈 트레이닝)를 활용한 온라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만들어냈고, 5G, AI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 시대의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선수들이 집에서 훈련하거나 생활체육을 배울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한다던지 비대면으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해 더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장애인 선수들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은 이미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보다 패럴리피언은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집에서 훈련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운동선수들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하면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팀원들과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심리상담도 줌 같은 화상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과 과학적인 지원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특수상황임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나 운동선수들의 수당이나 급여 지급에 유연한 정책이 계속해서 적용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운동 기술에 대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